



한국의학물리학회 창립과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며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회의 건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김 성규 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우리 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먼저 축하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가슴 깊숙이 그리움과 무엇인가 이루어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꿈틀거립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할 즈음에 영남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개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개원과 더불어 35년을 영대병원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학회를 만들 때, 학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술활동과 연구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학물리학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관으로 전국 국립대학병원에 6MV 선형가속기가 설치되었다.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되게 하였고, 의학물리학자들이 20여명 활동하게 되었다. 모임의 필요성에 따라 1990년 1월에 고신대학교병원에서 모임을 가졌고, 1990년 6월 금호호텔에서 발기인 대회를 거쳐, 1990년 9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국의학물리학회 창립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초대 회장에 추성실교수(연세대학교), 부회장에 최태진교수(계명대학교), 양철용선생(고신대병원), 박일영 교수(신흥전문대학), 감사에 강정구선생(전주예수병원), 총무이사에 강위생교수(서울대학교), 학술이사에 김성규교수(영남대학교), 섭외이사에 이병용선생(현대아산병원), 재무이사에 지영훈선생(한양대병원), 이사에 박승진선생(전남대병원), 편집위원장에 김성규교수가 임명되었다.

1. 학술활동

한국에서 한국의학물리학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국 출신의 의학물리학자들의 역할이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립 학술대회 때 최명천교수(Medical college of Virginia), 박용규박사(Ohio valley Medical Center), 김용인교수(Univ. of Washington)가 참석하여 발표해주셨고, 많은 격려를 해 주었다. 우리가 미국 학회에 참석했을 때도 최명천교수님께서 엄청 환대해주셨고, 용기를 주었다. 초창기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를 수월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되었지 않나 생각한다. 한 동안 그분들의 은혜를 잊고 지낸 것 같아 죄송스럽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에 우리학회가 안정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응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무렵 미국에서 여러분의 MD 선생님도 오셨고, 의학물리분야에서도 서태석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분들의 역할도 학회가 발전하는데 한몫을 담당하였다.

1989년에 치료방사선학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Medical Physics 분야의 필독서인 “The Physics of Radiation Therapy”의 저자인 Khan을 초빙하였다. 1991년에는 국제의학물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Medical Physics, IOMP)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 2000년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의학물리기구연맹(Asia- Oceania Federation of Organization for Medical Physics, AFOMP)가 창립되고 회원 단체로 가입하였다. Federation of Organization for Medical Physics, AFOMP)가 창립되고 회원 단체로 가입하였다.

학회 창립과 더불어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의학회의 모든 학회는 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 학회가 이루어지고 활동을 하듯이 처음의 계획은 전문인 자격증을 갖는 자가 학회 정회원이 되고 이 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학회를 이끌어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원 단체로 가입하려고 몇 년 동안 애를 써면서 회원 문제에 대하여 비 자격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혼돈의 상태를 안은 채 학회는 성장하였다. 돌이켜보면 이 부분이 학회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자격증 소지자만 정회원이 되는 제도가 된다면 장기적인 발전에는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2020년도(사)한국의학물리학회 30주년 기념 및 제 60회 추계학술대회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16:00 ~ 16:30

한국의학물리학회 창립과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며 -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회의 건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김 성규 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또 하나의 사건은 의학물리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복지부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학회를 협회로 창립한 적도 있었다. 결국은 무산이 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초기 10년 넘게는 부족국가가 거대국가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원 단체가 되는 기본 회원수가 250명이었는데 우리는 회원이 30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때까지 좌충우돌하였지만 학회 자립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무모하였지만 지칠 줄 모르는 이러한 노력들이 학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말 우리 학회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3년마다 개최되는 한일의학물리학회일 것이다. 3년마다 한번씩 한국의 전 회원이 일본에 가고, 일본의 전 회원이 한국에 오는 시스템이다. 발표자들만의 교류가 아니라 학회 전 회원들의 교류인 것이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국제학회가 행해지는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1996년 제 1회는 서울에서, 1999년 제 2회는 치바에서, 2002년 제 3회는 경주에서, 2005년 제 4회는 교토에서, 2008년 제 5회는 제주에서, 2011년 제 6회는 후쿠시마에서, 2014년 제 7회는 부산에서, 2017년 제 8회는 오사카에서 개최되었으며, 2020년 제 9회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 한국의학물리학회는 창립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2002년 5월에는 학회 창립과 그 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법인 허가를 신청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공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의학물리 및 의용생체공학 학술총회 2006년 서울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가 있었다. 우리 학회를 전 세계에 소개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004년에는 의학물리학 분야의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한국의학물리학자상을 제정하였다. 추성실 회원이 제 1회 수상자의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 수상 조건이 학회 창립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점과 한일의학물리학회 창립이었다. 또한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자긍심과 학문적 성취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우수논문상, 젊은의학물리학자상, 지도교수상, 우수포스터상, 온열상(김명세교수의 지원)을 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학회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구비하게 된 것이다.

2006년 4월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로 가입하게 되었다. 의사 전문의 자격증의 권익 단체인 의학회에 비의사 단체로는 전문의 자격증에 준하는 의료인의 단체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진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2006년 8월 서울 COEX에서 열린 의학물리 및 의용생체공학 세계학술총회는 우리 학회의 온 힘을 집결한 최고의 행사였으며, 이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학물리학회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학회 재정의 자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획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었다.

IAE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인 “아시아-태평양 치료방사선 품질보증 네트워크 구축(UNDP)”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방글라데시,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의 6개국에서 방사선종양학 의사 2명과 의학물리학자 4명을 선발하여 한달간 국내 병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원자력의학원, 영남대학교의료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2007년 휴스턴에서 한국의학물리학회와 재미한국인의학물리학회는 양 학회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하여 교류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09년 Anaheim에서 재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인 교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학회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었다.



2020년도(사)한국의학물리학회 30주년 기념 및 제 60회 추계학술대회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16:00 ~ 16:30

한국의학물리학회 창립과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며 -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회의 건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김 성규 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2. 연구활동

학회가 9월에 창립되고 그해 12월에 학회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고 일을 추진하였다.

학회지 발간에 따르는 학회지 디자인, 논문 확보, 경비 세 가지가 문제였다. 학회지 디자인으로 여러 개의 국내 학회지, Medical Physics, Physics in Medicine & Biology 을 비교 검토한 결과 Physics in Medicine & Biology를 모델로 하였다. 이름은 세련되게 “의학물리”로 하였다. 제작하고 나니 표지 색상이 따라주지 않았다. 창간호에는 13편의 논문이 실렸다.

학술대회등 학회 활동은 열정으로 가능하지만, 학회지 발간은 더욱 어려운 문제였다. 나름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따르는 실험 결과를 통하여 논문이 나올 수 있는데 30명도 안되는 회원으로 년 2회의 학회지를 발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98년부터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다고 연2회 발간을 4회 발간으로 하였으며, 정기 간행물번호 ISSN 1226-5829를 부여받았다. 계간으로 발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 결과 2003년 12월에 ‘의학물리’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07년 12월에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2007년 2월에 “의학물리”가 대한의학협회에서 운영하는 KoreaMed에 등재되었다.

2007년 이사회 결정을 보면 우리학회는 학회지에 대한 일대 혁명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2008년도부터 SCI 준비로 영문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장단이 바뀌면서 학회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이 지나갔고 2012년에 다시 편집위원장을 맡으면서 학회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북경 세계의학물리학술총회에서 김시용교수님 등의 의견으로 한국이름이 붙지 않는 영문으로 된 일반적인 이름을 추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학물리”를 “Progress in Medical Physics”로 바꾸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에는 Korea Med에 등재, Synapse에 등재, KoMCI에 검색, DOI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Cross mark를 적용하였다. 2015년부터 한국연구재단 투고시스템을 사용하다가 2016년에 박종민교수님 최창현교수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독립된 논문 투고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16년부터 SCI 등재를 위하여 SCI 등재 TFT팀을 구성하였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SCI로 가기 위하여 먼저 2016년에 Pub Med, Scopus에 등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Scopus 등재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하며, 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검증을 위하여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단어 수는 200자에서 300자로 정하였다.

SCI 등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노고가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의 흥망성쇠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흥하는 것이며, 개인의 이기가 작용할 때는 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끝없는 애정을 고대하면서, 학회의 상징인 학회 마크는 박영우교수님의 작품임을 밝히 둡니다.

